



교사 가이드 세계시민의식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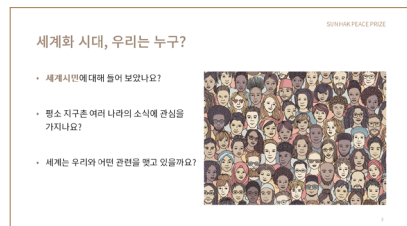
도입 1: 국경을 초월한 일상

- **일상생활 속 세계의 물건들:** 우리는 아침에 미국 농부가 재배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고, 필리핀 공장에서 생산된 티셔츠를 입고, 중국에서 생산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중동에서 수입한 기름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탄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속 많은 물품들은 세계 곳곳에서 생산된 것이다.
 - **실시간 생중계되는 글로벌 뉴스:** 통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류는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이웃:** 주변을 돌아보면 세계 다양한 지역과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 + 정보 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우리는 세계화된 세계에 살고 있고,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도입 2: 세계화 시대, 우리는 누구?

- 평소 지구촌 여러 나라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나요?
 - 세계는 우리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요?
- + **세계화된 세상:** 세계화란 세계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류가 많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류는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수 있고,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전 세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세계화로 인한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 + **새로운 인류의 필요:** 지구촌 시대는 시야가 국가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된 세계시민을 필요로 한다. 인류가 함께 직면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구촌을 위한 일이며 동시에 개개인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도입 3: 지구촌 시대, 세계적 확산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 국가들 사이에 돈의 흐름이 자유로워지면서 한 나라의 호황 뿐 아니라 금융 위기까지도 다른 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8년 미국에 닥친 금융 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글로벌 확산:** 에볼라, 사스, 코로나19는 특정 지역에서 발병 후 세계적으로 확산한 감염병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전염 속도가 매우 빨라 첫 발생 이후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6천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도 180만 명에 달한다(2020년 12월 통계).



1. 세계시민은 누구일까요?

- **시민:** 민주 사회의 구성원이자 정치적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 **세계+시민:** 세계시민은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은 인종, 국가,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배척하지 않으며,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은 스스로를 한 국가의 국민이라고만 여기지 않고 지구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 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우리는 세계화된 지구촌에 살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미 세계시민이다.



2. '세계시민'이란 말은 언제부터 사용하였을까요?

-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2천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철학자들은 이미 자신들을 '세계의 시민'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신들이 속한 개별적인 도시나 집단을 넘어서 세계 전체에 소속감을 가지며, 세계를 위한 문화적, 정치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20세기 초:** 1900년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며 사람들은 또 다시 이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구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평화와 자유, 인권의 가치를 지



키기 위해 국제연합(UN)을 창설하였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국제 사회는 세계시민의식을 싹틔워 나갔다.


- **20세기 후:** 교통과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인류는 더욱 가깝고 긴밀하게 소통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 흐름과 더불어 세계시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세계시민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자질이 인류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3. 세계시민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 **인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 인종, 종교, 민족, 국가, 부의 정도, 장애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지구촌 사람 모두가 그들 고유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 **상호의존성:** 세계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나 자신과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다양성:**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다. 인종과 종교, 사회적·역사적·정치적 배경, 언어·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지속 가능성:** 인간이 장기적인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것을 ‘지속가능성’이라고 한다. 즉,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유지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4. 세계시민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 **세계시민의식 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nhb6sL__mhs
- **타인에 대한 공감:** 지구촌 모든 사람의 인권은 인종, 성별, 지역적 특성, 종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시민은 인권이 침해당한 지구촌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다름에 대한 존중:** 세계시민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존중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세계시민은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내고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적극적 행동:** 세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은 후엔 행동이 요구된다. 발달된 통신 연결망을 활용하여 세계 여러 곳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만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5. 세계시민은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 **지속가능 개발 목표:** 2015년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다. 이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17개의 목표:** 1. 빈곤 퇴치 2. 기아 퇴치 3. 건강과 복지 4. 양질의 교육 5. 양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이용 가능한 청정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9. 산업, 혁신, 기반 시설 10. 불평등 감소 11. 지속 가능 도시와 공동체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13. 기후 행동 14. 해수 및 담수 생태계 15. 육상 생태계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17. 파트너십



5. 세계시민은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1. 빈곤 퇴치)

- **절대적 빈곤 13억 명:** 빈곤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소유물이나 돈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절대적 빈곤(하루 생계비 1.25달러 이하)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22.7%에 달하는 12억 9천만 명이다(월드뱅크 2012년 통계). 부족한 식량과 부실한 삶의 여건으로 생존이 위태로운 ‘절대적 빈곤’은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다.
- **부의 불평등:** 세계 최고 억만장자 26명의 자산이 전 세계 하위 38억 명(세계 인구의 50%) 자산과 같다(옥스팜 2019년 통계). 특히 신자유주의 무역 체제가 강조되면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막대한 이윤을 남겼고, 글로벌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시민의 역할:**
 - ① **국제 개발 협력:**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하며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서로 돕는 모든 활동을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한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에게 빈곤 퇴치, 교육, 보건 등을 위한 자금과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 ② **공정 무역:** 개발도상국 제품 생산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들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하는 무역형태를 공정 무역이라 한다. 공정한 무역을 통해 개발 도상국의 빈곤한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들에게 가해졌던 인권 침해, 노동력 착취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5. 세계시민은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2. 기아 퇴치)

- **8억 명의 굶주린 사람들:** 현재 전 세계 영양실조 인구는 약 8억 명 (10.7%)이다. 유엔은 2030년까지 굶주림과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 **식량 불평등:** 전 세계 식량의 양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 충분하다. 그러나 생산, 유통, 배분 방법이 가장 가난한 이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 빈곤과 기아는 개인의 역량 부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적절한 복지제도의 부재, 부정부패, 불평등한 무역구조 등 사회적, 정치적,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글로벌한 관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시민의 역할:**
 - ① **국제식량원조사업:** 세계식량기구(WFP), 옥스팜 등, 유엔난민기구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절대적 빈곤 상태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식량 원조 단체의 후원 활동을 하는 것도 세계 기아 퇴치에 동참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②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것,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기아 퇴치를 위한 일상적인 노력이 될 수 있다.**



5. 세계시민은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3. 환경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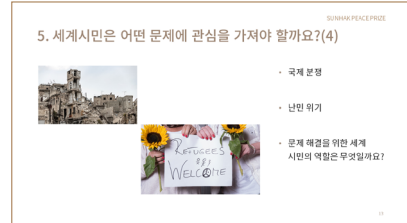
- **환경 오염:** 한 국가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은 대기와 해류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대표적 오염 물질은 황사와 미세먼지, 선박 기름과 방사성 물질로,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기후 위기:**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인류가 사용한 화석 연료는 끊임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다. 온실가스는 지구가 점차 더워지는 지구 온난화를 야기했고, 2020년 기준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무려 0.8°C나 상승했다. 이로 인해 빙하가 감소하고 해수면이 상승했으며 각종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가 발생하며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시민의 역할:**
 - ①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후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을 실천한다.**
 - ② **국가는 기후 협약 실행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소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③ **기업은 생산 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경영 전반에서 친환경적인 실천을 강조한다.**



- ④ 개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일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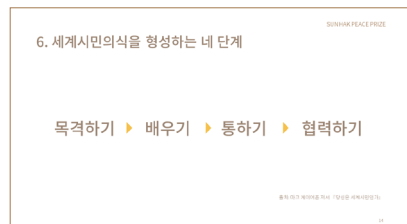
5. 세계시민은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4. 분쟁과 난민)

- **국제 분쟁:** 오늘날도 지구촌 곳곳에서 종교, 인종, 문화 등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간, 민족 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지역 분쟁은 국가 간 전쟁이나 무차별적 테러로 악화되어 전 세계적 공포로 번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종교적 근본주의나 배타적 민족주의로 갈등과 마찰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시리아 내전은 주변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난민 위기:** 전 세계 난민은 세계 인구의 1%인 7천 950만 명이다 (유엔난민기구 2019 통계). ‘난민’이란 국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 박해, 안전의 위협 등을 피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21세기 들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난민의 상당수는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많은 나라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난민들의 거취 문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시민의 역할:**
 - 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확충한다. 한 국가 안에 여러 민족이 살아갈 경우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각각의 종교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존중한다.
 - ② 국제연합(UN)과 유엔 난민 기구(UNHCR) 등의 국제기구는 국제 분쟁을 중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기구들은 국제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나 단체를 제재하고,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구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6. 세계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네 단계(출처: 마크 게이어존 “당신은 세계시민인가”)

- **목격하기(눈을 뜨는 것):**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된다. 문제를 방관자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일로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다.
- **배우기(지성을 깨우는 것):** 세상의 문제를 목격하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진다. 관심가는 문제에 대해 지식을 쌓아가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
- **통하기(관계를 형성하는 것):**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연결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 세계시민은 심지어 ‘적’으로 불리는 사람들과도 연대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지구적으로 협력하기(함께 일하는 것):** 세계시민은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내고,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 + **난민문제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기:** 난민 문제에 관심 갖기 ⇨ 난민 위기에 대해 배우기 ⇨ 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들과 연결 고리 찾기 ⇨ 난민구호 단체 후원 활동하기

7. 세계시민의식을 토대로 활동하는 국제기구

- **국제기구란?:** 전 세계는 지구촌으로 묶이게 되었고, 활발한 교류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국제기구는 이런 문제들을 전 세계 다자간 협력을 토대로 해결하는 기구다.
 - ① 국제기구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 개별적인 국가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 ② 국제기구는 각 나라의 대표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특정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 **국제연합(UN):** 국제연합은 국가들의 연합으로 세계 2차대전 종식 후, 세계 전쟁 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한 기구다. 초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크게 평화유지 활동, 군비축소 활동,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세계식량계획(WFP):** 전 세계 기아 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관이다. 민간의 운송이 어려운 분쟁지역 및 오지에 식량을 수송하는 유엔기구로, 굶주림이 전쟁과 갈등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세계 보건 기구(WHO):** 세계 2차대전 종식 후,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유엔 전문기구다. 전 세계 인류 모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제공, 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등의 일을 하고 있다.



8.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

- **지노 스트라다:**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전쟁 희생자들을 살려낸 이탈리아 외과의사(1948~). 2017년 선학평화상 수상자.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부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 아래 1994년 국제 긴급의료단체인 ‘이머전시(Emergency)’를 설립하여, 분쟁지역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냈다 (16개국 이상에서 60개 이상의 긴급 의료시설을 운영, 800여만



명의 생명 구호).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 사막 한복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장외과센터 및 전문치료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권이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부격차에 따라 클래스 A, B, C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1944~). 2020년 선학평화상 수상자. 반기문 총장은 10년간 유엔을 진두지휘하며 지속가능한개발계획,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왔으며, 퇴임 후에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국가를 초월해 지구촌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무를 가질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전 세계 76억 명 사람들 중 혜택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실직하고, 절망적인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 열정을 갖고 행동하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 세계시민의식과 코로나19

- **세계시민들의 일상을 바꾼 코로나19:** 유례없는 전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지구촌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을 선언하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공식화하였다.
-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혐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최초 발생지인 중국과 중국인, 나아가 동양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무조건적 배타주의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배타적인 태도는 초국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팬데믹 해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 **연대의식과 협력:** 국가이기주의로는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연대 의식 아래 백신과 치료법을 개발하고, 방역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초국적 협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팬데믹 이전부터 분쟁과 기아, 폭력과 빈곤으로 힘든 삶을 살아오던 많은 이들에게는 이 상황이 더 혹독한 위기임을 인식하고, 이전보다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